근대 초기 ‘연극적 소설’과 계몽담론의 서사화 전략*

이정옥**

1. 서론
2. 계몽담론의 균열과 ‘연극적 소설’의 등장
3. ‘연극적 소설’의 연행성과 계몽담론의 서사화 전략
   3-1. 연설회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과 설득의 서사
   3-2. 회의 현장을 재현한 ‘연극적 소설’과 합의의 서사
4. 결론

국문요약

근대 초기 ‘연극적 소설’은 연설과 회의, 소설, 연극적 특성이 결합된 독특한 서사물이다. ‘연극적 소설’은 다수의 청중을 향해 계몽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연설회나 회의를 소설 속에 그대로 재현하여,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를 펼치는 배우처럼 등장인물이 연설과 회의를 실행하는 모습을 실사로 중개하듯 전달한다. 이 독특한 서사물은 보안법과 출판법이 발포되는 등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국민을 찾아가는 대중연설과 집회가 전면 금지됐던 1900년대 후반, 소설 속에 연설과 회의의 현장을 끌어들여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계몽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등장했다. 근대 초기 ‘연극적 소설’은 연설회를 재현한 유형과 회의 현장을 재현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본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1-1203-0274)에 의해 작성된 것임
**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www.kci.go.kr

『금수회의록』과 『경세종』, 1920년대에 신소설 다시 쓰기 붐을 타고 『금수회의록』의 모티프를 차용한 『만국대회록』 등 연설을 재현한 '연극적 소설'의 두드러진 특성은 '이중의 액자구조'와 연설하는 신체성의 부조에 있다. '이중의 액자구조'는 우화소설과 연설회의 특성이 결합된 것이다. 서술자가 동물들의 연설회에 참관하게 된 경위와 소감을 전달하는 외부서사 속에 연설회의 광경을 담은 내부서사가 들어 있고, 내부서사는 다시 개회사와 폐회사라는 또 다른 작은 액자 속에 동물들의 연설이 담긴 독특한 형태를 이룬다. 또한 동물들이 연설하는 장면은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모습과 같이 연설하는 신체동작을 통해 독자들에게 연설회의 현장에 참여한 것과 같은 감동을 안겨준다. 즉, 청중을 향해 질문을 건네거나 화답하는 수사적 어법, 웃음소리와 박수소리 등의 청중의 신체적 반응을 곳곳에 삽입함으로써 연설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집단적 정동을 공감각적으로 느끼게 만든다.

회의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은 독자들에게 회의의 규칙과 진행방법을 교육하고, 회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하는 이중의 목적을 지향한다. 회의는 그 특성에 따라 회의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유형과 소규모의 토의로 구분된다. 『병인간친회의록』, 『천중가절』, 『금수재판』은 전자에, 『자유종』은 후자에 속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액자구조와 회의하는 신체를 부각하여 학습효과와 계몽효과를 극대화한다. 『병인간친회의록』과 『천중가절』은 회의규칙에 따라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순차구조를 이룬다. 『금수재판』 역시 회의규칙과 재판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순차구조를 이룬다. 그러나 『자유종』은 소규모의 좌담회라는 특성상 '의제 제시 → 자유로운 의견 개진 → 마무리'의 패턴이 반복되는 순차구조와 병렬구조가 결합된 독특한 구조를 지닌다. 회의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의 공통점은 마치 연

www.kci.go.kr

극 대본과 같이 서술자의 개입이 차단되고 오직 직접화법의 대화를 통해 동의, 재청, 가결 등의 회의 용어를 활용하여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하는 신체적 규범이 전경화된다. 이러한 회의 장면은 독자들에게 회의 규칙과 원리에 합의에 도달하는 회의 절차를 교육시키는 학습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주제어 : 연극적 소설, 계몽담론, 풍속개량론, 연행성, 연설회, 회의 현장, 회의 규칙, 집단적 정동, 정서적 반응, 근대적 말하기의 형성과정)

1. 서론

1900년대 말은 식민통치의 변화에 따라 연설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소설과 연극이 부상하는 전환기이다. 1907년의 '신문지법'과 '보안법'에 이어 1909년의 '출판법' 반포를 계기로 '중인이 모여 문자를 낭독하거나 연설하는' 군중집회와 공중회동이 철저히 금지되었고,[1] 이에 따라 애국계몽운동과 더불어 활성화됐던 연설회나 대중 집회, 각종 결사 등의 열기가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계몽이념의 내용은 물론 그것을 전달하는 양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계몽담론은 국민국가 신설과 국민 주권의식의 고양에서 '풍속개량론'으로 전환되었고, 소설 속에 연설과 회의의 현장을 끌어들여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계몽이념을 전파하는 새로운 양식이 등장했다. 이 새로운 양식은 안국선의 『금수회의록』(1908)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수회의록』은 한 해 전에 출간된 『연설법방』의 속편 혹은 통속화라는 평가받을 정도로 연설을 통해 계몽담론을 전

1) 「빅셩을 속박, 신문을 속박」, 『공립신보』, 1907. 8. 30.

www.kci.go.kr

파하려는 목적을 지닌다.[2)]

본고는 근대적 말하기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거시적인 연구의 일부로, 18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연설과 회의, 토론 등의 근대적 말하기의 방식이 『금수회의록』 등과 같이 소설 속에 재현되는 1900년대 말에 등장한 일군의 소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국민을 찾아가는 대중 집회나 연설회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연설과 회의 현장을 소설 속에 그대로 재현하는 독특한 서사체가 등장했으며, 이 일군에 속하는 작품으로 『금수회의록』 외에 『경세종』(1908), 『병인간친회의록』(1909), 『금수재판』(1910), 『자유종』(1910), 『천중가절』(1913) 등이 있다.

이 일군의 소설은 당대 신문 광고나 표제 등을 통해 골계소설, 종교소설, 풍자소설, 신소설, 토론소설 등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기법이나 소재적 특성에 따라 자의적으로 붙여진 것이어서 일관성도 없고 체계적이지도 않아 학문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이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대부분 대화나 토론 등의 말하기 양식과 문학적 양식이 결합된 서사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토론체소설(혹은 토론소설)'로 규정하고, 신소설 이전의 과도기적 문학 양식으로 분류하고 있다.[3)] 그러나 토론체소설이란 명칭은 신소설 이전에 등장한 근대 초기의 서사를 아우르지 못한다. 후속 논의들은 이런 점을 의식하여 그 하위 범주로 단형서사, 대화체소설, 문답식소설, 토론체서사, 토론소설, 회의 형식의 소설, 연설체소설과 같이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4)] 논자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

2) 김윤식, 『한국문학사논고』, 법문사, 1973, 115쪽.

3) 이에 대한 연구물은 상당히 많은 편이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송현호의 『한국근대소설론연구』(국학자료원, 1990), 김윤식의 『한국소설사』(예하, 1993), 문성숙의 『개화기소설론연구』(새문사, 1994), 김교봉의 『근대전환기소설연구』 (국학자료원,1995)를 들 수 있다.

4) 대표적인 예로 정선태의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권보드래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소명출판, 2000), 고영학의 『개화기소설의 구조연

www.kci.go.kr

지만 크게 보면 교리문답처럼 설명의 편의성을 추구하거나 이질적인 언어 게임의 양상을 보이는 단편적인 대화체 소설과, 연설회나 회의 현장을 문학적 양식으로 전환한 장편 서사로 분류하고 있다. 김영민은 다양한 명칭에서 오는 혼란을 정리하여 '서사적 논설'과 '논설적 서사'로 분류하고, 신소설을 '논설적 서사'의 연장선상에서 '서사 중심의 신소설'과 '논설 중심의 신소설'로 정리하였다.[5] 이런 기존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이 일군의 소설은 토론체소설, 토론소설, 연설체소설, 논설 중심의 신소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명으로는 이 일군의 소설이 지닌 특성 즉, 연설과 토론이라는 근대적 말하기 양식이 소설 속에 재현되는 양상이나 연설과 회의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재현에 따른 연행성 등 가상의 연설회와 회의 장면을 실사로 전달하는 소설이라는 문학적 양식이 결합된 특성을 온전하게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일군의 소설을 토론체소설 또는 토론소설, 논설 중심의 신소설 등으로 호명하며 문학적 양식과 계몽 담론의 전달체로서의 정치적 의사소통 양식의 결합에 주목했던 그간의 문학연구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당대 신문에서 『금수회의록』을 '연극적 소설'로 호명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6] '연극적 소설'이란 명칭이 『금수회의록』의 광고 문구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 속에는 등장인물이 연단에 서서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듯 청중을 향해 연설과 토론하는 모습을 연행하는 연극적 특성과 연설회의 현장을 독자에게

구』(청운, 2001), 김동식의 「개화기 문학개념에 관하여-의사소통양식으로서의 문학을 중심으로」(『국제어문』 29집, 2003.12), 전은경의 「근대계몽기 지식인 독자의 '읽기'와 '쓰기' -『대한민보』 〈풍림〉의 〈대화체 서사〉와 토론체소설을 중심으로」(『국어국문학』 165집, 2013.12, 513-554쪽) 등이 있다.

5)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1997, 190-296쪽.

6) 「골계소설 금수회의록」, 『대한매일신보』, 1908. 3. 6.

www.kci.go.kr

실시간으로 중개하듯 실사로 전달하는 소설적 특성이 결합된 이 일군의 독특한 서사체를 온전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수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이처럼 1900년대 말에 등장한 연설과 회의 현장을 재현한 독특한 서사체를 '연극적 소설'로 규정하면, 무엇보다 연설회와 대중 집회, 결사 등을 통해 국민을 찾아가는 계몽운동이 전면 금지된 당대 사회에서 연설과 회의를 소설에 접목시켜 간접적으로 나마 계몽담론을 전파하기 위해 고안된 일군의 작품이 지닌 특성을 밝혀낼 수 있다. 연설과 회의, 토론은 유길준, 서재필, 윤치호 등이 서구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합리적 입헌제 수립을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한 근대적 말하기 방식으로 1900년대 애국계몽기의 계몽주의자들 역시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보안법이나 신문지법이 반포되는 등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국민을 찾아가는 대국민 계몽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연설과 회의 토론 등을 소설 속에 재현하는 방식, 즉 '연극적 소설'을 통해 새롭게 계몽담론을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연극적 소설'이 함의하는 바는 『장한몽』이나 『은세계』 등과 같이 연극으로 만들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쓴 '소설연극'과는 엄연히 다르다. 또한, 『설중매』나 『홍도화』, 『목단화』 등과 같이 연설이나 회의 장면이 서사의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신소설과는 서사적 구조나 연설이나 회의에 임하는 인물의 연행적 특성 등에서 확연하게 다르다.

먼저, 2장에서는 1900년대 말부터 1910년대 초기의 정치적 맥락과 계몽담론이 변화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연극적 소설'의 등장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연극적 소설'에 나타난 계몽담론의 서사화 전략을 분석할 것이다. 근대적 말하기의 형성과정이 크게 연설과 회의라는 두 줄기를 따라 진행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연극적 소설'에

www.kci.go.kr

서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설회장을 재현한 작품군과 회의 현장을 재현한 작품군으로 나눠서 살펴볼 것이다.

2. 계몽담론의 균열과 '연극적 소설'의 등장

> "本小說은 新体文壇의 演劇的小說로 空前絕後의 一大禽獸會議를 開催하고 海陸動物이 演壇에 集合ᄒᆞ야 人類와 禽獸의 優劣과 造化主宰의 眞理를 討論批評ᄒᆞᄂᆞᆫ 光景을 傍聽實寫ᄒᆞ야 讀者諸君에게 紹介로 今日 吾人類社會의 公德頹敗ᄒᆞᆷ을 警醒코ᄌᆞᄒᆞᆷ이니 其滑稽的文体가 光彩陸離ᄒᆞ며 諷刺的批評이 奇拔欵曲하야 實로 國文小說界에 一大異彩를 放ᄒᆞᆯ만ᄒᆞ며 一讀解頤의 好書物이오"[7]

'연극적 소설'이라는 용어는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금수회의록』의 광고 문구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문구는 『금수회의록』의 특성을 연극적 소설, 인류 사회의 공덕과 퇴폐를 경성하는 계몽적 주제, 골계와 풍자를 통한 비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금수회의록』은 동물들의 목소리를 빌려 인간을 비판하는 우화소설이다. 따라서 계몽적 주제를 골계와 풍자로 그려낸 소설이란 지적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연극적 소설'이란 용어는 생소하다. 일단 '연극적 소설'이 함의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골계와 풍자,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해 보자. 그러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모인 육해동물이 연단에 집합하여 인류와 금수의 조화주재의 진리를 토론·비평하는 광경을 방청·실사하여 독자에게 소개하는 소설"이란 대목이 남는다. 이를 정리하면, '연극적 소설'이란 연설과 토론, 회의라는 근대적 말하기 양식, 등장인물이 연단에 집합하여 청중을 향해 토론·비평을 실행하는 연행성, 연설이나 회의

7) 「골계소설 금수회의록」, 『대한매일신보』, 1908.3.6.

www.kci.go.kr

하는 광경을 방청하여 독자에게 실사로 전달하는 소설적 양식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의미 구조물을 지칭한다. 요컨대, '연극적 소설'이란 연설자가 청중을 향해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적절한 제스처를 통해 계몽이념을 전하는 광경을 소설 속에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연설회와 회의 현장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든 독특한 서사물이다.

'연극적 소설'의 특성과 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00년대 이전까지는 시, 소설, 연극 등과 같은 근대문학의 분류체계 자체가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서서 말하는 전통이 없었던 근대 초기 연설의 수용과정과 무대 위에서 관객을 향해 연기를 하는 연극의 수용과정이 상동성을 지닌다는 사실도 환기할 필요가 있다.[8] 아울러 새로운 문학 양식의 출현은 문학 내부의 질서와 내적 동인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부화하여 문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결과물인 경우도 있지만, '연극적 소설'과 같이 사회문화적인 환경이나 역사적 맥락 등과 같은 외적 동인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연설과 문학, 연극은 청중과 독자, 관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수신자를 설득하거나 감동시킨다는 점에서 상동성을 지닌다. 계몽과 교화를 목적으로 청중을 향해 말을 건네는 연설은 사회 현실에 직접 개입하는 특성을 지니지만, 문학이나 연극에서는 작품 내의 상황과 작품을 둘러싼 외적 상황이라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문학의 경우 작품 내에 재현된 인물들의 서사적 상황과 독자와 작가가 작품을 매개로 사회적 소통이 일어나는 작품 외적 상황이 있으며, 연극 역시 등장인물이 만들어내는 무대 내의 상황과 극작가가 무대 내의 세계를 통

8) 효도미 히로미, 문경연 외 공역, 『연기된 근대』, 연극과 인간, 2007, 12-34쪽.

www.kci.go.kr

해 관객을 설득하는 무대 외부의 상황이 있다.[9] '연극적 소설'은 이러한 세 가지 장르의 특성이 결합된 독특한 양식이다. '연극적 소설'은 계몽과 교화의 목적을 지닌 연설이나 회의의 현장을 작품 내로 끌어들여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것과 같이 생생하게 재현함으로써 실제로 눈앞에서 연설회가 펼쳐지는 듯한 현장감과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몽주의 지식인들이 대중 집회나 연설회에서 다수의 국민을 향해 계몽이념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동일한 계몽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1900년대는 애국계몽운동의 활발한 전개와 더불어 계몽담론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됐던 시기인 동시에 일련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계몽담론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전환기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민을 찾아가는 대중연설과 대중 집회가 붐을 이뤘고, 애국계몽 단체의 성립과 각종 결사의 열기가 높았던 시기이다. 그러나 1907년의 신문지법과 보안법을 계기로 이러한 열기가 급속하게 냉각됨에 따라 국민주권과 정체성을 추구했던 계몽담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 "원래 어느 정치연설이든지 그 발기한 자가 연설의 문제와 대의를 일일이 먼저 고하여 치안의 방해가 될 듯하면 인가하지 아니하고, 또 연설장에 경찰관이 출장하여 언론의 과격함이 있으면 중지시키고 방청하는 사람을 해산케 하니, 대체 광무년간에 외국 유학한 생도 중 정치를 개량하고 국세(國勢)를 유지코자 하여 세력이 너무 강대하면 언론이 또한 과격하여 일세를 경동(驚動)하고 정부를 공격하거늘, 이러므로 정부에서 율문을 제정하여 단속을 엄중히 하는 고로 각처 연설회와 각 학교 토론회까지 모두 금지하니"[10]

구연학의 신소설 『설중매』를 통해 '풍속 통제'의 명분하에 연설 집회

9) 강희석, 「연극 텍스트분석 : 수사학의 '착상'과 라신의 『브리타니쿠스』를 통한 적용」, 전성기 외, 『텍스트 분석방법으로서의 수사학』, 유로서적, 2004, 269-270쪽.
10) 구연학, 『설중매』, 『한국신소설전집』 6권, 을유문화사, 1968, 16쪽.

www.kci.go.kr

가 금지됐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대중연설이나 정치연설은 물론 각종 집회와 연설회 심지어 각 학교 토론회마저도 금지되거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고, 사전 인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연설회 현장에 경찰이 참석하여 사상 검증을 단행하는 등 언론 제약과 정치 탄압이 강화됐다.

최초의 '연극적 소설'에 해당하는 『금수회의록』(1908)의 출현은 이러한 식민통치 권력에 대한 대응전략에 해당한다. 안국선은 일본 유학시절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에서 수학한 경험과 정치학을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법률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고, 국민을 찾아가는 집회와 대중연설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켰던 애국계몽 운동가이자 명망있는 연설가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1907년 신문지법과 보안법을 계기로 언론 탄압이 전면화되자, 안국선은 근대 최초의 연설교육서인 『연설법방』과 연설회를 소설 속에 재현한 『금수회의록』을 연이어 발간했다.[11] 『금수회의록』을 『연설법방』의 속편 혹은 통속화라는 김윤식의 주장[12]과 같이, 『연설법방』과 『금수회의록』은 연설교육서와 소설이지만 연설을 통해 민지계발과 문명개화의 계몽담론을 전파하기 위한 계몽교육서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지닌다.

경시청은 즉각적으로 『금수회의록』을 불온서적으로 지정·수거하는 동시에 저작의 취지와 개요에 대해 취조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13] 경시청이 민감하게 반응한 표면적인 명분은 신문지법 위반이었지만, 내밀한 이유는 『금수회의록』이 일본 메이지시대의 정치소설 『인류공격금수회의』와 흡사한 점에서 비롯된 과잉반응이었다. 메이지 10년 즈음 반정부적 연설 집회가 성행하자 메이지 정부는 집회단속령과 집회조례 등

11) 이정옥, 「연설의 서사화 전략과 계몽과 설득의 효과-안국선의 『연설법방』과 『금수회의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13권 1호, 2007.6, 151-184쪽.
12) 김윤식, 『한국문학사논고』, 법문사, 1973, 115쪽.
13) 「文字之危」, 『황성신문』, 1908.7.18, 잡보란.

www.kci.go.kr

을 발포하여 연설과 집회를 철저하게 단속했다.[14] 1885년에 출간된 『인류공격금수회의』는 메이지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피하여 소설 속에 동물들의 연설회를 재현하여 우의적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정치소설이다. 『인류공격금수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논의가 정설로 굳어질 정도로 『금수회의록』 역시 금수회의를 통해 인간을 비판하는 우화소설이자 정치소설이다.[15] 이어 발표된 일군의 '연극적 소설'들 역시 풍자와 우의 등의 기법 활용, 연설회와 회의 현장의 생생한 재현을 통한 계몽담론 전달 등의 측면에서 『금수회의록』과 동일선상에 있다. 이처럼 '연극적 소설'은 1900년대 말경 정치탄압이라는 외부적 동인으로 인해 연설과 토론의 열기가 일시에 쇠락하고 연극과 소설이 급부상하는 시기에 출현한 역사적 구성물이다.

다른 한편, 연극과 소설의 급부상은 1907~1908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당시 광무대와 단성사 등의 민간극장이 잇달아 설립되면서 연극이 실내공간의 볼거리 체험으로 등장했으며, 서적출판소와 출판사, 인쇄소, 도서종람소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읽을거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09년 출판법의 발포와 더불어 검열이 강화되자 출판계에서는 상업성 추구, 일본 서적의 대량 유입 등의 변화가 시작됐고,[16] 문명개화와 애국계몽의 담론 실천장으로서의 연극장 역시 점차 '공중회동'과 '흥행장'의 분리에 의한 유희적 공간으로 전환되었다.[17] 계몽담론의 균열과 탈계몽적 이탈을 경계하기 위해 계몽주의자들은 '풍속개량론'을

14) 고모리 요이치, 허보윤 외 공역, 『감성의 근대』, 소명출판, 2011, 180-185쪽.
15) 왕희자, 「안국선의 『금수회의록』과 田島象二의 『인류공격금수국회』의 비교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1.
16) 강명관, 「근대 계몽기 출판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문학사연구』 14호, 1999, 55-70쪽.
17) 권정희, 「근대 연극장의 재편과 '흥행' 개념」, 『한국근대예술 연구』 42집, 2013, 25쪽.

www.kci.go.kr

표방하기 시작했다.

> "동서양을 물론하고 풍속 개량하는 효험이 학교가 제일이라 하겠으니, 그 효험의 속함을 말하면 연설이 학교보다 앞서고 소설이 연설보다 앞서는 데, 소설보다 앞서는 것이 연희라 하느니"[18]

> "쇼설과 연희는 심샹ᄒᆞᆫ 부녀ᄌᆞ와 시졍무식ᄇᆡ의 뎨일 감동ᄒᆞ기 쉽고 뎨일 즐겨하는바-라 그힘이 능히 샤ᄅᆞᆷ으로ᄒᆞ여곰 그 셩졍을 ᄯᆞ러서 변ᄒᆞ게ᄒᆞ고 능히 세쇽으로ᄒᆞ여곰 그풍쇽을 ᄯᆞ러서 변ᄒᆞ게 ᄒᆞ는자-라ᄒᆞᆯ만ᄒᆞ도다 -중략- 셔양각국에서는 쇼셜을 져슐ᄒᆞᆷ과 희ᄃᆡ에셔 연희ᄒᆞ는거시 모다 큰 영웅과 쥰걸들이 하ᄂᆞᆯ을 놀래고 ᄯᅡ를 진동ᄒᆞ던 사젹이며 그 사ᄅᆞᆷ들의 샤진을 활동으로 연희ᄒᆞ여 국민의 ᄉᆞ샹을 고동ᄒᆞ고 국민의 의기를 발양케ᄒᆞ여 죡히 문명ᄌᆞ유의 인됴ᄒᆞ는 사ᄅᆞᆷ이 될만ᄒᆞ게 ᄒᆞ거늘 우리 한국은 쇼셜과 연희의 ᄌᆡ료를볼진ᄃᆡ ᄒᆞᆫ가지도 긔샹이 활발ᄒᆞ여 사ᄅᆞᆷ이로 ᄒᆞ여곰 긔운이 발ᄉᆡᆼ케ᄒᆞᆯ거슨업고 다만 음란ᄒᆞ고 괴괘ᄒᆞᆫ습관만 자라게ᄒᆞ니 인심의 효박ᄒᆞᆷ과 민ᄉᆡᆼ의 곤난ᄒᆞᆷ이 모다 이를 인ᄒᆞ여 되는거시 아니라ᄒᆞᆯ수업스니 풍쇽을 ᄀᆡ량코져ᄒᆞᆯ진ᄃᆡ 반ᄃᆞ시 쇼셜과 연희를 몬져 ᄀᆡ량ᄒᆞᆷ이 가ᄒᆞ다ᄒᆞ노라"[19]

풍속개량론은 학교나 연설보다 연극과 소설이 풍속개량의 효험성이 높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연극과 소설이 지닌 '감동과 즐거움'은 '사람들의 성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힘을 지니므로, 풍속개량을 도모하기 위해 먼저 연극과 소설의 개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계몽주의 지식인들은 연극과 소설을 통한 풍속개량의 궁극적 목적을 '국민사상의 고동과 의기의 발양을 통한 문명 자유의 인도'에 두었으며, '영웅준걸의 사적을 담은 서구의 연극과 소설'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연극개량론자들은 '야매(野昧)의 악습'이라 비판받았던 연극을 '국가와 국민의 풍속개량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익한 문명적 제도'로 받아들이기

18) 구연학, 『설중매』, 『한국 신소설 전집』 6집, 을유문화사, 41쪽.
19) 「쇼셜과 연희가 풍쇽에 상관되는 것」, 『대한매일신보』, 1910.7. 20, 논설.

www.kci.go.kr

시작했다.[20]

> "근일에 쇼셜짓는쟈의 츄세를 볼진딕 사름으로 ᄒᆞ여곰 대경쇼괴ᄒᆞᆯ쟈ㅣ 볼일ᄒᆞ도다 이쇼셜도 음풍이오 뎌쇼셜도 음풍이라 미인의 아릿다운 ᄐᆡ도를 그려내며 남ᄌᆞ의 호탕ᄒᆞᆫ 모양을 ᄉᆡᆨ여내며 ᄒᆞᆫ번 보ᄆᆡ 음심이 ᄉᆡᆼ기고 두번보ᄆᆡ 음심이 방탕케 ᄒᆞᄂᆞ니 오호-라 쇼셜은 국민에게 지남침과 ᄀᆞᆺ흔쟈ㅣ라 - 중략- 쇼셜을 짓는쟈들은 일홈을 샤회쇼셜이라ᄒᆞ며 일홈을 졍치쇼셜이라ᄒᆞ고 일홈을 가뎡쇼설이라ᄒᆞᆯ거시 은근히 음풍을도와셔 아편으로 사ᄒᆞᆷ을쥭임과 다를이업스니 엇지가와가아닌가"[21]

그러나 위의 예문과 같이 당시 신문과 잡지에는 이인직의 『은세계』를 풍속개량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여 '사회상에 도덕을 해롭게 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정신을 혼미 하고 국민의 정신을 방탕하게 만든다'는 비판적 논설이 집중적으로 실렸다.[22] '사회소설, 정치소설, 가정소설' 등의 표제를 달고 많은 소설이 출간되었지만, 계몽주의자들은 '국민의 음심을 자극하고 국민을 죽이는 아편과 같'은 '음풍소설(淫風小說)'로 치부했다. 당시 연극과 소설은 '풍속개량론'을 앞세운 계몽주의 지식인들의 계도와 달리 탈계몽적 이탈을 감행하는 추세였고, 이에 대해 계몽주의자들은 '상풍패속(傷風敗俗)'이라며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흥미롭게도 풍속개량론자들의 비판을 의식하여 『은세계』의 광고 문구를 "李人稙氏가 我國 演劇을 改良ᄒᆞ기 爲ᄒᆞ야 新演劇을 夜珠峴 前協律社에 創設ᄒᆞ고",[23] "一般社會의 風俗을 改良ᄒᆞᆯ 目的으로 新小說演劇을 設行ᄒᆞᆷ"[24]과 같이 거듭 수정을 단행했다. 이를 종합하면 1900년대 말

---

20) 「연희장의 야습(野習)」, 『황성신문』, 1907.11.29, 논설.
21) 『대한매일신보』. 1909.12.2, 잡동산이.
22) 위의 논설 외에 「연극쟝의 독갑이」(『대한매일신보』, 1908.11. 8. 논설), 「소설과 희대의 관계」(김문연, 『대동학회월보』 14호, 1909.3.25, 논설) 등이 있다.
23) 「소설연극」, 『황성신문』, 1908.7.1, 잡보란.
24) 『황성신문』, 1909.2.1, 광고란.

www.kci.go.kr

경부터 1910년대 초에 일어난 풍속개량론과 탈계몽적 이탈 사이에 길항적 경합이 존재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연극적 소설'은 이런 길항적 경합의 지점에서 탄생했다. 이처럼 '연극적 소설'은 문학 양식으로서 태생적 입지점이 매우 불안했으며, 한일합방을 전후해서 치안을 어지럽힌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금서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그 생명력이 지극히 짧을 수밖에 없었다.

3. '연극적 소설'의 연행성과 계몽담론의 서사화 전략

'연극적 소설'은 연극적 특성과 소설적 특성이 결합된 독특한 서사물이다. 그러나 무대 위의 연극으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극적 인물의 행동, 극적 언어의 운용, 주제 전달의 기법 등 공연되었을 때의 효과를 미리 작품 속에 준비한 극작품[25]과는 엄밀하게 다르다. '연극적 소설'은 계몽적 메시지를 서사와 묘사를 통해 전달하는 소설적 특성을 주로 삼되, 관객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표현매체로 삼는 공연예술로서의 연극이 지닌 공연적 특성, 즉 연행성을 차용한 서사물이다.

근대 초기 '연극적 소설'은 크게 연설회를 재현한 유형과 회의의 현장을 재현한 유형으로 나눠진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연설과 회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근대 초기 공적 말하기의 형성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연설이 처음 도입됐던 1890년대 후반에는 스피치(speech)의 의미를 지닌 '공변(公辯)'의 형태로 존재했다. 당시 공론장 형성에 앞장섰던 서재필과 윤치호는 회의와 토론을 통한 공변의 활성화를 꾀했으나 1890년대 말 민회해산 명령 등의 사회·정치적 여건으로 인해 성공하지

25) 김재석, 『한국 현대극의 이론』, 연극과 인간, 2011, 16-19쪽.

www.kci.go.kr

못했다. 1900년대 중반에 들어서 비로소 연설(speech)은 연설(address)과 토론, 회의 등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국민을 찾아가는 연설회가 확산되고, 애국계몽 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 성립과 결사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근대적 말하기의 형성과정은 연설과 회의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26]

근대 초기 '연극적 소설' 역시 이런 흐름에 따라 청중을 향한 설득적 발화가 주를 이루는 유형과 일정한 규칙에 따른 논의과정과 합의적 발화가 두드러진 유형으로 나뉜다. 전자에는 연설회장을 재현한 『금수회의록』과 『경세종』』, 1920년대에 신소설 다시 쓰기 붐을 타고 『금수회의록』을 차용한 『만국대회록』이 있고, 후자에는 회의의 현장을 재현한 『병인간친회록』, 『천중가절』, 『금수재판』, 『자유종』이 있다.

3-1. 연설회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과 설득의 서사

연설은 한 사람의 연설자가 다수의 청중을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적 말하기 방식이다. 연설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연설자와 청중 사이에 취지와 목적에 대한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메시지 전달자인 연설자와 수용자인 청중은 물론, 연설자와 청중이 일정한 시공간에 모일 수 있는 장소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27] 『금수회의록』을 비롯한 『경세종』, 『만국대회록』 등 연설회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의

---

26) 이에 대해서는 「근대 초기 연설교육서에 나타난 근대적 말하기 규범」(『국어국문학』 161호, 2012.8, 109-235쪽), 「근대초기 회의규범의 수용양상(1)」(『한국문학논총』 59집, 2011. 12, 379- 409쪽), 「근대 초기 회의규범의 수용양상(2)」(『인문학연구』 2014. 2, 415-510쪽)에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27) 김만석 외, 『웅변학』, 화술, 1998, 28-36쪽.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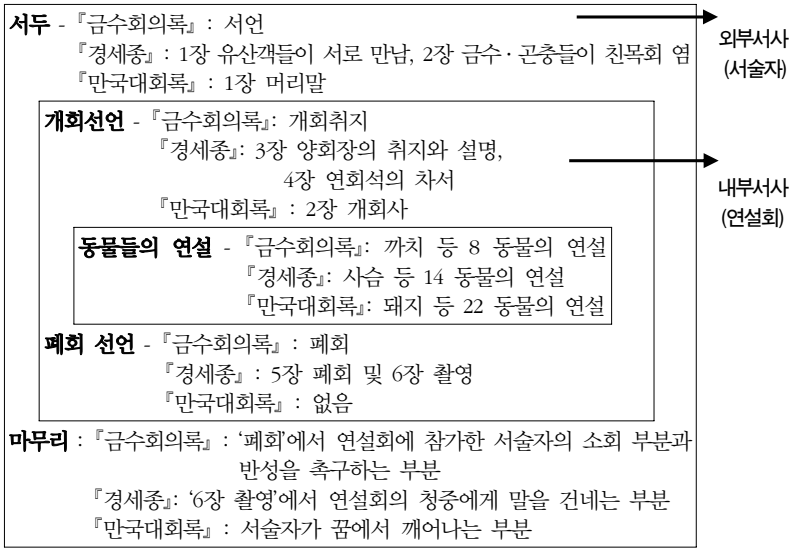
특성은 이러한 요건을 반영하는 까닭에 독특한 서사적 특성과 수사적 특성을 지닌다.

연설회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의 두드러진 서사적 특성은 연설회의 특징과 우화소설의 특징이 결합된 '이중의 액자구조'의 구성에 있다. 우화소설의 특징과 관련 있는 첫 번째 액자구조는 동물들의 연설회 현장을 그린 내부서사와 이 현장을 서술자의 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외부서사가 결합된 형태이다. 연설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두 번째 액자는 회장의 개회사와 폐회사라는 또 다른 액자 속에 연설자들의 연설 장면이 담겨 있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연설회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의 전체적인 서사구조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서술자-독자' 층위의 외부서사라는 큰 액자 속에 '연설자-청중' 층위의 내부서사가 들어 있는 이중적인 계몽구조를 이루며, 이 내부서사는 다시 '회장의 개회사-폐회사'라는 또 하나의 작은 액자 속에 여러 동물들의 연설이 들어가 있는 이중의 액자구조를 이룬다. 이중의 계몽구조와 이중의 액자구조의 결합을 통해 서술자-독자, 연설자-청중의 설득화법을 중첩시킴으로써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확신주기와 행동유발의 계몽 메시지가 공고해진다.[28]

28) 김열규, 『이광수 문학론의 전개』, 『한국근대문학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69, 94쪽.

www.kci.go.kr

〈그림 1〉



『금수회의록』의 외부서사의 서두에서 서술자는 독자를 향해 "애닯고, 불쌍하고, 탄식하고, 통곡할만하도다. 금수만도 못한 이 세상을 어찌하면 좋을꼬?"[29]라며 인간사회에 대한 비판적 탄식과 '인간사회를 구제해야 한다'는 확신주기의 메시지를 건넨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동물들의 인간 성토에 대해 "분하고, 슬프고, 불쌍하고, 부끄럽다"는 소회와 더불어 "회개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강구하라"[30]는 행동강령을 지시한다. 독자를 향해 확신주기와 행동강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술자는 민지계발과 풍속개량의 계몽담론을 설파했던 계몽 지식인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이 연설을 실행하는 연극적 공간에 해당하는 내부서사에서 서술자는 방청객의 위치에서 "~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말을

29) 안국선,『금수회의록』,『한국신소설전집』8권, 을유문화사, 1968, 13쪽.
30) 안국선,『금수회의록』,『한국신소설전집』8권, 을유문화사, 1968, 32쪽.

www.kci.go.kr

한다", "~ 본색이 드러나더라"와 같이 간접화법을 통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연설회의 광경을 충실하게 전하는 전달자의 위치에 머문다.

연설회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에서 동물들의 연설회라는 우화적 설정에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액자구조뿐 아니라, '꿈'과 '환상' 모티프를 도입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우화소설을 비롯한 교훈문학에서 비현실적인 가상세계를 끌어들여 독자들로 하여금 거부감 없이 교훈적 메시지를 수용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종종 사용된다.[31] 『금수회의록』의 서술자가 '춘풍이 불어오는 금수회의소'에 당도하게 된 경위는 '천리에 어긋난 세상을 구할 방도를 찾기 위해 성현의 글을 읽'다 잠든 꿈속의 일이다. 『만국대회록』에서도 '꿈' 모티프를 차용하지만, 와병 중의 서술자가 비몽사몽간에 이웃의 싸움 소리와 어머니의 까마귀를 쫓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다 '금수들의 만국대회장'에 당도하는 설정을 통해 개연성을 높이려 했다. 『경세종』에서는 '마음이 교만하고 성품이 패려한' 유산객이 산속을 헤매다 '금수들의 원유(園遊)'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내부서사는 전형적인 연설회의 형식에 따라 '개회사 → 여러 동물들의 연설 → 폐회사'의 순서로 전개된다. 『금수회의록』에서 회장이 밝힌 연설회의 취지와 목적은 '사람의 책임에 대한 의논, 사람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의논, 인류 자격의 유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하나님께 인간들의 이름을 빼앗도록 상주하여 회개하게 만드는 회의'이다.[32] 까마귀 등은 인간 사회의 윤리도덕의 문제를 거론할 때 자주 인유되는 동물들로, 그들의 연설 내용은 각 동물들의 특성에 맞게 인류에 대한 논박을 펼친 것이다.

---

31) 캐스린 홈,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55-66쪽.
32) 안국선, 『금수회의록』, 『한국신소설전집』 8권, 을유문화사, 1968, 15쪽.

www.kci.go.kr

"후록코트를 입어서 전신이 새까맣고 똥그란 눈이 말똥말똥한데, 물 한 잔 조금 마시고 연설을 시작한다. 『나는 까마귀올세다. 지금 인류에 대하여 소회를 진술할 터인데 반포의 효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하겠소. - 중략- 여우가 연설을 그치고 할금할금 돌아보며 제자리로 내려가니, 또 한편에서 회장을 부르고 아장아장 걸어와서 연단 위에 깡충 뛰어올라간다. 눈은 툭 불거지고 배는 똥똥하고 키는 작달막한데 눈을 깜짝깜짝하며 입을 벌죽벌죽하고 연설한다."[33]

연설과 문학, 연극적 특성이 혼합된 '연극적 소설'에서 동물들의 연설회 장면은 연설하는 신체 동작과 언설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마치 실제로 동물들이 무대 위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생동감과 현장감을 갖게 만든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각 동물들이 견해를 발언하기에 앞서 먼저 각 동물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연설의 주제가 소개되는 데, 이때 서술자는 "후록코트를 입어서 전신이 새까맣고 똥그란 눈이 말똥말똥하다", "눈은 툭 불거지고 배는 똥똥하고 키는 작달막하다"는 등과 같이 동물의 외모적 특성이나 "눈을 깜짝깜짝하며 입을 벌죽벌죽하고 연설한다"와 같이 동물들의 신체 동작을 전달한다. 이어 연단에 올라 온 동물들은 "나는 까마귀올시다"와 같이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한 다음 '반포의 효에 대해 말씀하겠소'라고 주제를 언급한 후 본격적인 연설에 들어간다. 『금수회의록』에서 여덟 동물의 연설은 '자기소개 및 주제 소개 - 인간의 도덕적 책무에 대한 성토 - 동물들에 대해 인간이 지닌 편견에 대한 반박 - 인간 자격에 대한 평가'라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

33) 안국선, 『금수회의록』, 『한국신소설전집』 8권, 을유문화사, 1968, 20-21쪽.

www.kci.go.kr

〈표 1〉

내용 / 동물	주제	인간의 책무 검토 및 행동 비판	인간의 편견 대한 반박	인간 자격에 대한 평가
① 까마귀	反哺之孝	효도는 자식된 자의 직분이요 하나님의 법이나, 인간들은 효도가 없어졌다.	까마귀는 부모 봉양하고 해충 잡아먹는 등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에게 업수이 여김을 받을 까닭이 없다.
② 여우	狐假虎威	인간들은 외국의 힘을 빌어 나라가 망하고 동포를 압박하고 있다.	여우는 분수를 지킨다.	요망하고 간사한 것은 사람이니, 사람을 여우라 하고 여우를 사람이라 해야 한다.
③ 개구리	井蛙語海	인간들은 천박한 지식으로 개화했다 자칭하는 병통을 일삼고 있다.	개구리들은 좁은 우물 안에서 분수를 지킬 줄 안다.	천박한 지식으로 남을 속이고 악한 말만 하는 사람보다 개구리가 상등이다.
④ 벌	口蜜腹劍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든 인간은 사람의 형용에 시랑과 마귀가 되고 있다.	벌은 입에 있는 꿀은 양식을 만들고, 배의 칼은 정당방위로 쓴다.	돌아서면 욕하며 죽이려 하는 사람보다 악독한 짐승은 없다.
⑤ 게	無脹公子	사람들의 창자는 썩어 남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분한 마음도, 자유를 찾을 생각도 없다.	게는 남이 해치면 죽더라도 한 놈은 물고 죽는 자존심이 있다.	창자가 다 썩어, 사람이라 자긍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⑥ 파리	營營之極	인간들은 이(利)를 추구하기 위해 골육상쟁을 일삼는다.	파리는 친구와 족속을 불러 화락한 마음으로 같이 나눠 먹는다.	조정에 있는 간신과 소인 등 인간을 해치는 마귀나 쫓아내라.
⑦ 호랑이	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사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하나, 지금은 사람의 껍질에 호랑이 마음을 가져 더 흉포하다.	양호유환(養虎遺患)이라 하나, 호랑이는 은혜와 의리를 깊게 안다.	천리와 인도를 의론하지 않고 욕심 많고 포악한 인간의 종자를 없애야 한다.
⑧ 원앙	雙去雙來	인간은 처첩을 여럿 두고 조강지처를 버리기를 예사로 안다.	원앙새는 정절이 지극하여 부부의 倫紀가 지중하다.	처첩을 여럿 둔 사내, 간부와 도망갈 궁리만 하는 계집 등 더럽고 괴악한 사람이 넘쳐난다.

동물들의 연설 내용은 〈표 1〉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동물들을 무시하는 인간들의 편견과 오만에 대한 반박 -인간들의 잘못된 행실과 동물의 바른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반박의 타당성 입증 - 인간의 자격에 대한 평가'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까마귀의 연설을 예로 들면, "효도는 자식 된 자의 직분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전제로 시작하여 '까마귀는 흉조가 아니라 효조이며 오히려 인간에게 효도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를 입증하는 근거로 '점심때까지 자고 주색잡

www.kci.go.kr

기, 협작질하기, 흉보기 등으로 소일하며 부모가 진지를 잡숴는지 처자가 기다리는지 모르'는 인간들의 잘못된 행태와 '해뜨기 전에 일어나 부모 봉양하기, 집짓기, 해충 잡아먹기 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까마귀의 행동을 비교한다. 비판의 대상은 주로 당대 사회를 혼란과 도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겨냥하고 있다. 또한 까마귀 등 여덟 동물들의 연설은 효, 분수, 의리, 자긍심, 은혜, 절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류의 자격 없음'에 대한 논증이 반복되는 병렬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동물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설득력을 지닌다.

이러한 비판은 '사람은 스스로 제일 귀하다 신령하다 말하지만, 세상에서 어리석고 제일 더럽고 괴악하다'[34]는 회장의 폐회사를 통해 더욱 확고해진다. 최종적으로 방청객의 위치에서 연설회의 전체 과정을 지켜보던 서술자가 '슬프다 여러 짐승이 연설할 때 나는 무슨 말로 변명할 수가 없고 반대를 하려하나 현하지변을 가지고도 쓸데가 없도다'[35]라고 탄식하는 소설의 말미에 이르면, '인류의 자격 없음'이란 동물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여러 번 반복되는 인간에 대한 성토의 메시지는 소설의 말미에서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였으니 깊이 생각해보자'는 서술자의 행동강령을 적극 수용하게 만든다. 이중의 액자구조와 이중의 계몽구조의 조합은 독자들에게 사회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확신과 행동강령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한다.

『경세종』과 『만국대회록』 역시, 이중의 액자구조와 이중의 계몽구조가 조합된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금수회의록』에 비해 동물들의 수가 많아 연설의 규모가 크고 인간을 향한 비판이 다양하게 펼쳐지지만, 비판의 강도가 현저하게 약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경세종』에서 동물들의

34) 안국선, 『금수회의록』, 『한국신소설전집』 8권, 을유문화사, 1968. 13쪽.
35) 안국선, 『금수회의록』, 『한국신소설전집』 8권, 을유문화사, 1968. 13쪽.

www.kci.go.kr

집회는 '타락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자'는 제목에 걸맞게 기도회의 성격을 지닌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수교에 입참한지 10년이 되었지만 아무 효험을 보지 못한' 원인을 기독교 교리에 벗어난 사람들의 행태에 있다고 전제한 다음, 연설회의 취지와 목적이 '기독교 교리에 충실한 동물들의 친목 도모'에 있음을 선언하고[36] 기도 형식으로 개회사와 폐회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연설회에 앞서 다과위원, 접빈위원, 시간위원 등 임원진들의 준비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한다거나 사진 촬영과 찬송가로 마무리하는 폐회 장면이 연출된다. 이런 까닭에 인간의 비도덕성을 강하게 비판했던 『금수회의록』과 달리 비판의 강도와 긴장미가 떨어지는 편이다. 이런 특성은 서술자가 독자를 향해 "한편에 숨어 앉았던 저 사람들은 귀가 열렸지...."라는 말을 넌지시 건넬 뿐 현실비판이나 개혁의지를 담은 행동강령의 메시지가 제시되지 않은 소설의 말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동물들의 연설내용은 〈표 2〉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충실하게 살고 있는 동물과 섭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행태를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금수회의록』과 같이 인간의 비도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고 비판의 척도는 전적으로 성서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작새는 귀조나 미조라고 조롱하는 인간들의 편견에 대해 '하나님이 신성을 드러내는 본성에 충실한 것'이라 반박하며, 오히려 '분수에 넘치는 사치로 누추한 행실을 감추는 인간의 위선'을 비판한다.[37] 까마귀 역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양식을 공급한 양심적인 행적을 기준으로 삼아 백성들의 양식을 가로채는 탐관오리들의 비양심적 태도를 성토한다. 이처럼 기독교의 교리를 전면화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대한 비판이

36) 바로 이런 점이 『경세종』을 개화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문학으로 손꼽고 있는 이유이다.
37) 김필수, 『경세종』, 『한국 신소설 전집』 5권, 을유문화사, 1968. 357-358쪽

www.kci.go.kr

〈표 2〉

동물	동물과 인간의 행동 비교	동물	동물과 인간의 행동 비교
1차 사슴	효 ↔ 불효	2차 원숭이	공정성 ↔ 불공정성
3차 까마귀	양심 ↔ 비양심	4차 제비	청렴, 신의 ↔ 부패
5차 올빼미	분별력(지혜) ↔ 무분별	6차 고슴도치	외모보다 능력 ↔ 외모 중시
7차 박쥐	중용 ↔ 낭비	8차 공작	본성에 충실 ↔ 위선, 사치
9차 나비	자연의 섭리 ↔ 음란함	10차 개미	부지런함 ↔ 게으름
11차 자벌레	측량의 모범 ↔ 지도에 의존	12차 나귀	부지런함 ↔ 나태
13차 캉가루	새끼 사랑 ↔ 자식버림	14차 호랑이	분에 맞는 정복 ↔ 지나친 정복욕

약화된 점을 들어 『경세종』을 기독교 전파에 목적을 둔 종교소설로 규정한다거나, 『금수회의록』에서 언급한 '하나님'은 범종교적인 속성을 지닌 반면 『경세종』에서는 기독교에 국한된다는 등의 논의가 전개됐다.[38] 그러나 안국선을 비롯한 당대 대부분의 개화론자들이 서구 문명을 수입하여 인민의 성질을 완전히 감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민을 기독교로 개종시켜야 한다는 '기독교적 도덕개조론'을 주장했고[39] 『금수회의록』 역시 기독교 교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을 환기하면, 이러한 관점은 다소 편협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기독교에 경도됐던 김필수에 비해 정치학 전공자답게 균형 있는 현실감각을 지닌 안국선의 높은 안목을 상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수회의록』이 1908년 5월에 출간되자마자 경시청으로부터 불온서적으로 지정·수거당한[40] 이후 검열이 강화됐던 정

38) 문성숙이 『개화기 소설론 연구』(새문사, 1994, 112-113쪽)에서 언급한 내용을 김경완의 『고대소설과 개화기 소설의 기독교적 의미』(월인, 2000, 115쪽)과 홍순애의 『한국근대문학과 알레고리』(제이앤씨, 2009, 125-135쪽) 등에서 답습하고 있다.

39) 김대희, 「안국선씨 대한금일선후책」, 『이십세기조선론』, 탑인사, 1907, 2쪽.

www.kci.go.kr

황을 참작해보면, 『경세종』에서 비판의식이 약화된 원인을 기독교의 전면화로 몰아붙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국대회록』에서는 『금수회의록』이나 『경세종』에서 볼 수 없는 솔개, 고양이, 나비, 자라, 기린 등을 포함하여 스물 하나의 동물들이 대거 등장한고, 연설의 주제도 미신, 애타주의, 종교의 상업화 등 더욱 다양해진다. 각 동물들의 연설 역시 동물들의 바른 행동과 인간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인간을 성토하는 패턴을 취한다. 그러나 기린이 종교의 상업화의 주제로 또는 게가 사치와 허영의 주제로 연설하는 등 동물의 특성과 걸맞지 않는 주제를 무리하게 설정하여 비판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또한 스물 하나에 이르는 동물이 장황하게 연설하는 광경은 계몽적 연설회라기보다는 오히려 볼거리가 풍성한 행사를 엿보는 느낌이 강하다. 이런 특성은 1920년대 신소설 다시 쓰기의 붐을 타고 출간된 『만국대회록』이 『금수회의록』과 『경세종』을 모본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소설을 '국민 교과서'나 '국민의 나침반' 등과 같이 계몽적 교화의 수단으로 여겼던 소설의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고, 딱지본의 특성상 소설적 흥미 추구에 중점을 두었던 데서 기인된 것이다.

다른 한편, 연설회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동물들이 연설하는 행위, 즉 연행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연행성을 꼽을 수 있다. 연설자가 연단 위에 서서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몸짓, 몸가짐 등을 통해 청중들의 공감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연행적 특성은 배우가 관객을 향하여 말과 몸짓을 통해 연기를 펼치는 연극과 흡사하다. 극장 안에서의 배우와 관객 사이의 감정적 동일화가 극장 밖으로 확산되어 국민/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41] 청중을 감동시키는 호

40) 「文字之危」, 『황성신문』, 1908.7.18. 잡보란.

www.kci.go.kr

소력에 중점을 두는 연설을 통해 국민으로서의 주권의식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연희를 ᄀᆡ량ᄒᆞ여야 국민의 슌연ᄒᆞᆫ덕셩을 훈도ᄒᆞ며 이거슬 ᄀᆡ량ᄒᆞ여야 국민의 고샹ᄒᆞᆫ 감졍을 고동ᄒᆞᆯ지라"[42]는 주장은 바로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여 계몽적 사상과 도덕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연극의 시청각 효과에 주목한 것이다.[43]

연설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메시지라는 전달 내용과 더불어 신체 동작을 포함한 전달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 구어를 통해 전달되는 연설자의 메시지는 연행과정에서 연설자의 강한 정념과 결합될 때 비로소 청중의 집단적 정동(情動)과 정서적 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44]

> "규칙 방망이 소기라 똑똑 나더니 회장인듯한 한 물건이 머리에는 금색이 찬란한 큰 관을 쓰고 몸에는 오색이 영롱한 의복을 입은 이상한 태도로 회장석에 올라가서 한번 읍하고, 위의(威儀)가 이 엄숙하고 형용이 단정하게 딱 서서 여러 회원을 대하여 하는 말이 『여러분이여, 내가 지금 여러분을 청하여 만고에 없던 일대 회의를 열 때에 한 마디 말씀으로 개화 취지를 베푸려 하오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라오. -중략- 그런 악독한 것이 어디 또 있으리요. 에, 여러분, 여보시오, 그래, 우리 짐승 중에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독한 것들이 있단 말이오?(손뼉소리가 귀가 막막)"[45]
>
> "사람은 죽어지면 엽전 한푼어치 값도 못나갑디다(하...하...하... 웃음), 인간에

41) 우수진, 『한국 근대연극의 형성』, 푸른사상, 2011, 90-95쪽.
42) 「연극쟝에 독갑이」, 『대한매일신보』, 1908.11.8, 논설.
43) 이에 대해 권정희는 「근대 연극장의 재편과 '흥행' 개념」(『한국 근대예술 연구』 42집, 2013, 24-25쪽)에서 '식민통치권력의 무단정치라는 통치변화만이 아니라 연극장의 근대화가 갖는 탈정치 탈계몽의 제도화에 의해 관객과 연극장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 역시 이런 변화를 인정하는 아니나 연설과 연극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여기서는 논외로 삼고자 한다.
44) 마리 매클린, 임병권 역, 『텍스트의 역학-연행으로서의 서사』, 한나래, 1997, 21-23쪽
45) 안국선, 『금수회의록』, 『한국신소설전집』 8권, 을유문화사, 1968, 14-24쪽에서 부분 발췌

www.kci.go.kr

효자 있단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옳소....박수), 만약에 있거던 있다시오. (없소....)"[46]

동물들의 연설 장면은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관객을 향해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연설자의 구체적인 몸동작과 연설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수사적 특성을 지닌다. 규칙 방망이 소리에 따라 무대에 올라온 회장의 화려한 의상은 물론 청중을 향해 연설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마치 연설회장에 직접 참여한 청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현장감과 생동감을 전달받게 된다. 또한 연설자들이 청중을 향해 '~도 있으리요', '~ 있단 말이오'와 같이 반응을 요구하는 질문을 건넨다거나 '만약에 있거던 있다시오'라며 화답을 요하는 수사학적 어법을 통해 연설자와 청중 사이에 공감을 이끌어낸다. 더욱이 연설자의 발언 사이사이에 '옳소', '없소'나 박수소리나 웃음소리 등의 청중의 반응을 삽입하여 독자들에게 연설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집단적 정동(情動)을 극대화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학적 어법과 장치는 독자들을 연설회장에 직접 참여한 청중의 자리로 소환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리하여 '연극적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눈으로는 소설 속의 연설 장면을 읽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시청각적 감각을 동원하여 연설회장에 직접 동참하고 있는 듯한 감동과 감흥을 공감하게 된다. 이런 공감각적 효과는 독자들에게 연설의 내용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46) 송완식, 『만국대회록』, 『한국신소설전집』 10권, 을유문화사, 1968, 284-292쪽.

www.kci.go.kr

3-2. 회의 현장을 재현한 '연극적 소설'과 합의의 서사

회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의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공적 말하기 방식이다. 회합의 목적과 절차가 원만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들 간에 회의 진행 원리와 회의 규칙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윤치호가 1890년대 말에 근대적 회의를 최초로 도입하고 Henry M. Robert의 *Pocket manual of rules of order for Deliberative Assemblies*를 초역(抄譯)하여 『의회통용규칙』을 발간했던 것도 국민 대중들에게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집의(集議)하는 습관을 심어주려는 계몽적 의도의 실천이었다.[47] 1900년대에 들어 애국계몽 단체 설립이 활성화되고, 상업성을 띤 단체나 회(모임)가 확산됨에 따라 '회가 없는 사회는 부모나 형제가 없는 것과 같다'거나 '회의 성패에 국가 존망이 달려 있다'[48]는 담론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계몽주의자들은 "문명ᄒᆞᆫ 사람의 불가불 알거슨 의회에셔 통용하ᄂᆞᆫ 규측이라"[49] 강조하며 『의회통용규칙』을 잡지나 신문 등에 재수록하거나 재발간하는 등 다각적으로 회의규칙을 유포시켰다.[50] 그러나 집회와 결사가 전면 금지되고 애국계몽 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추세였고, 더욱이 회의 경험이 없는 국민들에게 복잡한 회의규칙을 교육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회의 현장을 재현한 '연극적 소설'은 독자 대중들에게 회(모임)의 결성 방법과 회의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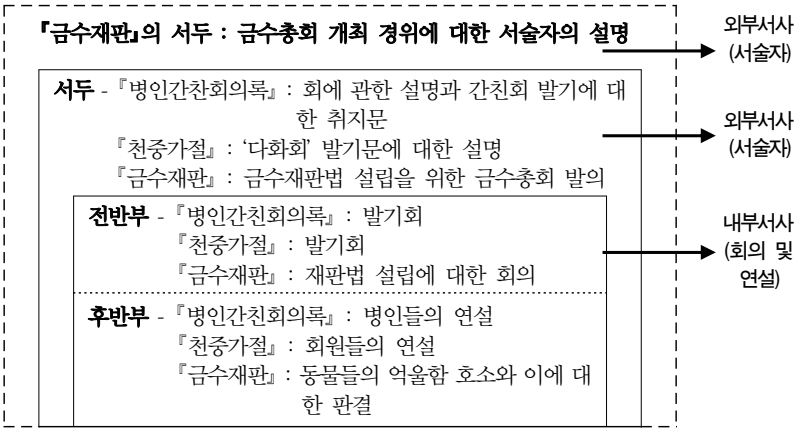
47) 이에 대해서는 「애국계몽기 연설과 토론의 수용과정」(『현대문학이론연구』 43집, 2010.12 175-197쪽)에서 살펴보았다.
48) 리기,「회지원의론(會之原義論)」, 『대한자강회월보』 5호, 1906. 11. 25, 22-23쪽.
49) 『대도』 제 1권 1호, 1908.12, 14-15쪽.
50) 이에 대해서는 「근대 초기 회의규범의 수용양상(2) - 애국계몽기 『의회통용규칙』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인문학연구』 47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2)에서 살펴보았다.

www.kci.go.kr

칙을 학습시키는 교육서이자 회의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계몽의 통로로 활용되었다.

회의의 종류는 그 목적과 진행 방법에 따라 의제에 대한 회합 구성원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어떤 문제를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결정하는 회의, 연회처럼 감사의 말 또는 간단한 연설이나 보고만 하는 회의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51] 친목회의 결성과정을 보여준『병인간찬회의록』과『천중가절』, 재판소 설립과정을 담은『금수재판』은 첫 번째 유형에, 소수의 등장인물이 자유롭게 토의하는『자유종』은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그림 2〉



첫 번째 유형의 서사구조는 회의 설립 경위가 담긴 외부서사와 회의 현장이 그려진 내부서사가 결합된 액자구조를 이룬다. 앞 장에서 살펴봤던 연설회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은 서두와 마무리가 수미쌍관의 대칭을 이룬 반면, 회의 현장을 재현한 '연극적 소설'의 외부서사는 서두는

51) 임영한 외,『화법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327쪽.

www.kci.go.kr

있지만 마무리가 없는 비대칭구조를 이룬다. 내부서사는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과정이 담긴 전반부와 회원들의 자유발언이 담긴 후반부로 나눠진다. 물론 우화소설에 해당하는 『금수재판』은 예외적으로 연설회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과 같이 이중의 액자구조를 지닌다. 즉, 『금수재판』은 금수총회에 대한 발의가 담긴 외부서사를 또 하나의 외부서사 즉, 금수총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또 다른 액자(점선에 해당하는 부분)가 감싸고 있으며, 내부서사는 의견 조정과 통합과정을 담은 전반부와 자유발언과 판결과정이 담긴 후반부로 나눠진다.

『병인간친회의록』의 서두 역시 '서술자-독자'의 담화 층위로 결사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서술자의 연설로 시작한다. "각색 명목으로 회를 죠직ᄒᆞ야 밤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혀 잇고 업ᄂᆞᆫ 것도 셔로 분배ᄒᆞ고 알고 몰오ᄂᆞᆫ 것도 셔로 밧고아 호올로 셔잇셔 혈연히 외로옴을 면ᄒᆞ니 장ᄒᆞ도다 사회의 업지 못ᄒᆞᆯ 것이여"[52]라는 서술자의 주장은 연설문집 『사회승람』(1908)의 서문에서 '회는 '개인의 힘과 마음을 합쳐 확장될 방침을 연구하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이 모인 결집체'[53]라는 문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일치한다.

'재판소설'로 분류됐던 『금수재판』의 서두 역시 서술자가 직접 독자를 향해 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연설로 시작하고 있다. 그 핵심내용은 사기, 절도 창탈 등 각종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혼탁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인데, 1907년 이준의 체포사건을 계기로 형사재판 개혁론이 비등해진 이후 즉결심판이나 경찰사법권과 같은 근대적 형사재판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등 사법권의 독립을 추

52) 굉소생, 『병인간찬회의록』, 『대한민보』, 1909.8.19, 3쪽.
53) 김병제, 『사회승람』, 보문사, 1908, 1-5쪽. 이에 대한 해석은 「근대 초기 회의규범의 수용양상(2)-애국계몽기 『의회통용규칙』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인문학연구』 47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2) 472-473쪽 참조할 것.

www.kci.go.kr

진했던 개혁파 지식인들의 입장과 일치한다.[54] 사법과 행정의 명백한 분리에 바탕을 두는 근대적 재판제도는 1908년 8월 새로운 재판소가 개청된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이 무렵 재판소에 수리된 월평균 소송사건은 1908년에는 285건, 1909년에는 1,516건, 1910년에는 2,269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55] 헌법재판소를 설립하여 '도덕근기를 세우자'는 주장은 당시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회의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의 첫 번째 유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회의 설립과정과 회의 진행과정을 사실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회의규칙과 합의과정을 교육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서두는 『의회통용규칙』 제 1장에서 제시한 바대로 회의 설립과정에서 가장 먼저 착수할 일, 즉 '동지 소집'을 위한 발기문이나 취지서로 시작하고 있다. '풍자소설'로 규정됐던 『병인간친회의록』의 '병인 간친회 취지서'의 핵심 내용은 "육체가 완전치 못한 병신 만인 동포가 사회단체를 조직하여 편안한 근기(根氣)를 세움으로써 풍조가 위험하고 경쟁이 극렬한 시대에 적극 나서자"[56]는 제안이다. 결사의 필요성을 주입하는 한편, 위기에 처한 사회현실을 육체가 병들어 있는 환자에 풍자적으로 비유함으로써 '육체적 불구를 정신적 온전함으로 극복하자'는 계몽 메시지를 부조(浮彫)하고 있다. 또한, 『천중가절』의 발기문에서는 여성교육의 당위성과 '부인다화회(茶話會)' 결성의 취지를 알리고 있다. 발기인의 명단, 발기회의 개최 날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발기문의 내용과 형식이 매우 정교하여 독자들이 발기문의 표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적 가치가 높다.

54) 도면회, 『한국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408-449쪽.
55) 문준영, 「한말과 식민지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법사학연구』 46집, 2012, 263-264쪽.
56) 굉소생, 『병인간찬회의록』, 『대한민보』, 1909.8.20, 3쪽.

www.kci.go.kr

회의는 일정한 장소에 모인 구성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합이다. 회합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려면 회의 진행과정이 규칙에 따라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 회의 진행 절차는 민주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면서 다수의 의견이 정당하고 질서 있는 방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회의 진행 절차는 모든 회원들에게 평등의 원리, 자유롭고 충분한 발언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 한 번에 한 가지의 발언을 허용하는 원리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57] 회의 광경이 담긴 내부서사의 전반부는 이처럼 회의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에 따라 회원들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순차구조를 이룬다.

〈표 3〉

작품 / 절차	『병인간친회의록』의 전반부	『천중가절』의 전반부
임시 회장 선출	발기인 중 1인 임시 회장 추천 명함 → 청맹관 아모씨를 추천 → 발기인이 가부 물음 → 전수가결로 회장 결정	발기인 중 1인 임시회 장 추천 동의 → 다른 부인이 재청 → 발기인이 가부 물어 가결됨
임시 서기 선출	회장이 승석하여 추천을 명함 → 회원이 벙어리 아모씨 추천 → 거수로 가결	회장이 승석하여 추천 명함 → 김규범의 동의로 여학교 교사 정의경 추천→ 우정애씨 재청 → 회장이 가부 물어 가결
기타 위원 선출	회장이 규칙제정위원 2인 추천 명함 → 반벙어리, 체머리장이 추천 → 반대 의견 → 다른 회원이 반박하며 가부 결정 청원 → 회장이 가부 물어 가결 → 반벙어리와 체머리장이 사면 청원 → 회장이 가부 물음 → 사면 없음에 대해 동의 → 재청 → 회장이 가부 물어 가결	최문희씨 임시 사찰에 감옥소 여감 신영희씨 추천 동의 → 김숙자씨 재청으로 가결

다수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회의의 특성상 발언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회의를 공정하고 질서 있게 이끌어가는 회장의 역할이 매우

57) 임영한 외, 『화법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327-329쪽

www.kci.go.kr

중요하다.[58] 이런 까닭에 『의회통용규칙』의 제 1장 '회를 조직하는 절차'에서도 첫 번째 회합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의 사회 하에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라는 규칙이 제시되어 있다.[59] 〈표 3〉과 같이 두 작품에서 임시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동의(動議) → 재청 → 가부에 의한 표결'의 회의 절차를 이행하며, 모든 회원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와 다수결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병인간친회의록』에서 반벙어리와 체머리장이를 '규칙제정위원'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예로 보면,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양쪽 입장의 의견을 충분이 들은 후 회원들의 가부 표결로 결정하는 식으로 규칙에 따라 순조롭게 합의를 도출해낸다. 또한 『천중가절』에서도 회원들의 자유로운 추천과 합의를 거쳐 여학교 교사를 서기로, 감옥소 여감을 사찰로 선출하는 등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보여준다. 이처럼 회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등장인물이 회의를 진행할 뿐 아니라 회원들의 이름과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어서 소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당대 사회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부인단체의 회의 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 같은 현장감과 사실감을 갖게 만든다.

『금수재판』의 내부서사의 전반부에서는 '금수재판소 설립'이라는 의제에 대한 회의과정이 초점화되어 있다. 초반에는 의제에 대해 '남의 고기를 먹고 사는 강포한 동물'과 '남에게 잡혀 먹는 유약한 동물'이 반대파와 찬성파로 나뉘어 의견의 충돌이 있었지만, 역시 '토끼의 찬성 의견 동의 → 원숭이의 재청 → 회원들의 가부에 의한 표결'의 과정을 거쳐 '재판소 설립'이 채택된다. '좌재판소'에는 털과 비늘이 있는 짐승들이

58) 임영한 외, 『화법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327-328쪽.
59) 윤치호, 『의회통용규칙』, 『대한자강회월보』, 1906.10.26, 2-4쪽.

www.kci.go.kr

'우재판소'에는 날개 있는 곤충들이 모여 각각 양과 학을 재판장으로 선출하는 과정 역시 추천과 합의라는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회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연극적 소설'을 읽는 독자 대중들은 회를 성립하는 방법과 규칙과 절차에 따라 회의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육체적으로 불구인 병인이나, 학교교육을 제대로 못한 여성들도 회를 결성할 수 있는 능력과 통합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며, 자발적 단체의 조직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적 메시지를 수용하게 된다.

한편, 내부서사의 후반부는 마치 연설회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과 같이 등장인물의 연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병렬구조를 이룬다. 회의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에서 전반부의 회의와 후반부의 자유발언이 합쳐진 독특한 구조는 대한자강회를 비롯한 대부분 애국계몽 단체들이 총회나 통상회 등을 진행했던 방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의회통용규칙』에 충실하게 의거하여 창립과정을 이행하고 회칙수립과 조직구성의 체계와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다른 단체에 모범을 제시했던 대한자강회의 창립총회를 예로 보면, 전반부에서는 회의를 후반부에서는 윤효정의 '본회의 취지와 특성', 정윤복의 '교육의 필요', 김규식의 '미국 농업교육의 효과', 장지연의 '식산흥업에 필요' 등의 연설이 진행됐다.[60] 회의와 연설회의 조합은 계몽 단체가 지식인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동시에 국민들을 향해 계몽담론을 유포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택된 것이다.

전반부의 회의와 후반부의 연설로 나뉘지만, 전체적으로 회원들 간의

60) 『대한자강회월보』 1호, 1908.7.31.

www.kci.go.kr

합의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이 연설회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병인간친회의록』의 후반부에서는 열 한명의 병인들이 자신들을 향한 편견에 대한 반박과 정신적으로 불구인 사람들의 비행에 대한 비판하는 연설을 펼친다. 형식적으로 여러 등장인물들의 연설이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병렬구조를 지니며, 내용적으로 동물들을 향한 인간의 편견을 반박의 근거로 삼는 논증구조를 지닌 점에서 『금수회의록』이나 『경세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61] 그러나 후자에서는 연설자가 청중을 향해 일방적으로 발언하는 일대다의 형태지만, 전자에서는 연설자의 발언 중에 모든 회원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가능하고, '동의-재청-표결'의 절차에 따라 합의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현격하게 다르다. 『병인간친회의록』에서 "회원들의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 소경 단청구경과 같다"는 '귀먹어리'의 불평적 발언에 대해 "소경단청이란 말은 회장을 조롱하는 무례이니 언권

61) 『병인간친회의록』에서 병인들의 연설에 담긴 편견에 대해 반박과 비판 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내용 / 인물	반박 및 주장	비판 대상
① **절름발이**	다리는 절지언정 행세는 절지 않는다.	벼슬을 애걸하는 관리들
② **외눈박이**	외눈이지만 정당한 것만 본다.	사익만 탐하는 관리들
③ **언청이**	찢어진 입술이지만 남을 속이지 않는다.	부정을 일삼는 관리들
④ **곰배팔이**	두 팔로 범과 사자를 힘써 막자	국권과 민족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
⑤ **안진방이**	한 곳에 존중스럽게 앉아 있는다.	좁은 식견으로 진보를 외치는 지식인들
⑥ **난장이**	키가 작아도 허리를 굽히지 않다.	허리를 굽혀 아부를 일삼는 관리들
⑦ **귀먹어리**	귀가 어두워 해를 입히지 않는다.	虛誕한 일에만 귀가 밝은 일반 동포들
⑧ **배부장이**	배는 크나 밥은 많이 축내지 않는다.	재물과 부를 축적하는 관리들
⑨ **혹부리**	남에게 없는 혹이 있어 잘 살고 있다.	우리도 오대 각주에 영지를 사서 제일 강국이 되자
⑩ **장님**	번개 같은 눈으로 만전불패의 길을 가자	눈앞에 이익만 취하는 동포들
⑪ **곱사등이**	병신으로 태어났지만 행동은 멀쩡하다.	행동이 병신스러운 정부대관들

www.kci.go.kr

을 주지말자"는 항의발언이 쏟아진다. 또한 "발언을 계속하여 회의 의론을 결정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병신 동포도 나라를 위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을 축하하고 끝내자"는 반박이 가해진다. 마무리 부분에서도 '회의 성립을 축하하고 바로 폐회하자'는 동의와 재청을 받아들여 회장이 다음 집회의 일시와 장소를 공지한 후 전체 회의를 마치는 식이다. 『천중가절』에서도 은행원 우정애의 자유 발언이 진행되는 중간에 '십오 분간 소풍하고 연속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동의→ 재청→ 가결'의 과정을 거쳐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지속한다. 또한 마무리 부분에서도 '부인회가 개명세계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모이자'는 의견에 만장일치의 거수가 결정되자 다음 회합을 약속하고 폐회를 선언하는 식이다.

이런 차이는 우화소설에 속하는 『금수재판』에서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재판소 설립 후 각 동물들이 차례로 등장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송사 연설 부분까지는 『금수회의록』이나 『경세종』에서 본 병렬구조와 유사하지만, 송사 연설이 끝난 이후 합의와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순차구조를 지닌다. 까치에서 파리에 이르는 여덟 동물들이 차례로 재판장 앞에 '소지(訴紙)'를 들고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발언이 끝난 이후 좌우의 재판장이 모여 각 동물들이 호소한 송사사건을 처리할 방법을 의론한다. 의론 결과에 따라 재판은 '도지기에게 명하여 소장(訴狀)과 서류를 조사하게 함 →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들음 → 재판장의 최종 판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www.kci.go.kr

〈표 4〉

내용 / 소송건	송사 내용	판결 내용
1) 작소구거	까치가 비둘기에게 집을 뺏김	비둘기는 까치에게 집을 돌려주고, 까치는 자기 것을 지켜라.
2) 토사구팽	토끼가 사냥개에게 살해 위협당함	토끼는 망령되게 행동하지 말고, 사냥개는 사냥꾼의 꼬임에 빠지지 마라.
3) 부서하봉	솔개가 봉황에게 먹이를 뺏김	봉황은 분수를 지키고, 솔개는 봉황을 시기하지 마라.
4) 호위호가	호랑이가 여우에게 사기 당함	호랑이는 간신배에게 매혹되지 말고, 여우는 거짓 행실을 하지 마라.
5) 지록위마	사슴을 말이라 불러 혼동에 빠지게 만듦	사슴은 말을 원망하지 말고, 말은 시비를 하지마라.
6) 척알소붕	붕조가 참새에게 조롱당함	붕조는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함을 버리고, 참새는 붕조를 시기하지 마라.
7) 붕의쟁공	개미가 벌에게 공을 빼앗김	서로 시기하지 말고 공을 다투지 마라.
8) 승문상송	파리가 모기에게 피를 뺏김	모기는 파리의 피를 빨아먹는 탐욕을 버려라.

〈표 4〉에서 보듯 까치, 토끼, 솔개 등의 원고가 호소한 송사사건은 집이나 식량 등의 탈취, 살해, 사기, 공갈, 협박 등 인민들의 재산이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재판의 공정성에 있다. 즉,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유죄 판결이 결정된다. 피고에 해당하는 비둘기, 사냥개, 까치 등에게는 원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약탈한 물건을 돌려주거나, 협박하지 말라는 등 유죄를 선고하는 동시에 피고의 잘못을 유발한 원고의 유죄를 인정하여 '자기 것을 스스로 지켜라', '망령된 행동을 삼가라'는 등의 판결을 내린다. 이는 재판관들이 화해와 조정의 방식으로 소송사건을 처리하고 법률의 공정성에 의거하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근대적 재판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근대적 재판제도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강조했듯이 사물의 일과 순서를 정리하는 규칙과 사람의 악을 막기 위한 규칙을 토대로 이룩된 것이다.[62] 근대적 재판제도는 1908년 8

www.kci.go.kr

월 신재판소의 개청과 민형사재판 관련 신규 법령의 실시를 계기로 처음 도입되었다. 또한 같은 해 9월 개혁된 제판제도 하에서 합리적으로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대표하고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리강구소(伸理講究所)'가 만들어졌다.[63] 당시 신문들은 '사법권의 독립으로 인민이 문명한 판결을 받아 권리가 보호가 된다'며 재판제도 도입을 환영했다.[64]

회의 현장을 재현한 '연극적 소설'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자유종』의 회의는 신설헌, 홍국란, 강금운 등 4~5명의 부인들이 '여자교육의 방침', '자녀교육', '꿈'이라는 세 가지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좌담회 형식을 지닌다. 토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여러 사람이 모여 협의하는 집단적 화법이다.[65]

『자유종』의 서사구조 역시 첫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액자구조를 이루지만, 내부서사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외부서사는 좌담회 개최 경위를 담은 서두와 폐회 선언의 마무리 부분이 수미쌍관의 액자구조를 유지한다. 좌담회가 개최된 경위는 첫 번째 앞의 유형과 달리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시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이매경의 생일잔치'라는 사적인 모임에서 신설헌과 이매경의 주도로 '여자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토의하자'는 제안에 따라 다소 우발적으로 개최된 것이다. 반면, 내부서사는 '여자교육의 방침', '자녀교육' '꿈'이라는 세 가지 의제에 대한 자유롭게 토의가 진행되는 순차구조와 각

62) 마류야마 마사오, 『"문명개략"을 읽는다』, 김석근 역, 문학동네, 2007, 488-496쪽.
63) 도면회,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법령 개정과정」, 권태억 외,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I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94-295쪽.
64) 「민법의 환영」, 『황성신문』, 1908.9.16., 잡보란.
65) 임영한 외, 『화법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314-315쪽.

www.kci.go.kr

의제 별로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병렬구조로 진행된다. 따라서 내부서사는 전반적으로 세 개의 의제가 차례로 진행되는 순차구조와, 각 의제 별 논의 단계에서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병렬구조가 합쳐진 독특한 서사구조를 지닌다.

〈표 5〉

의제 / 내용	1) 여자교육	2) 자녀교육	3) 꿈
제안	**신설헌**: 독립과 자유를 얻기 위해 대한여자교육계의 별 방침을 연구하자.	**신설헌** : 자녀교육은 여성 사업이다.	**금운** : 꿈을 얘기하자.
의견	**금운**: 한자 폐지하고 국문교과서 만들어 여자교육을 하자 → **국란**: 국문교과서로 여자교육하고, 여성단체 만들자.	**국란** : 서얼 차별의 악습을 개량하여 윤리상 행복을 추구하자.	**신설헌** : 대한제국 자주독립한 꿈을 꾸었다. → **매경** : 대한제국 개명하는 꿈을 꾸었다. → **금운** : "대한제국 독립하는 꿈을 꾸었다.
결론	**신설헌**: 여성 잡지와 교과서 발간하여 여자 동포의 목소리를 높이자.	**매경**: 양반제도는 유지하되 청년 모두를 교육하여 미래를 맡기자.	**국란** : 천만년 영구히 대한제국이 안녕하는 꿈을 꾸었다.

〈표 5〉와 같이 소규모 좌담회의 특성상 회의를 이끌어가는 회장이 부재하며, 동의나 재청 등 회의규칙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첫 번째 유형과 차별화된다. 이런 까닭에 논의과정이 다소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면밀하게 분석하면 '의제 제시 → 자유로운 의견 개진 → 결론'이라는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신설헌이 주도하는 편이지만, 다른 부인들 역시 '여자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책 모색'이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천중가절』에서 전문가로 등장한 인물들 못지않을 정도로 심도 있는 토의를 펼친다. 〈표 5〉의 첫 번째 의제에 대한 논의과정을 예로 들어보면, 신설헌이 먼저 '여자교육계에 대한 방침을 연구하자'는 제안을 하자 금운이 '한자를 폐지하고 국문교과서를 만들어 여자교육을 실행하자'는 대안책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국란은 '한자 폐지'에 대해서는 비판을 제기하지만 '국

www.kci.go.kr

문교과서를 통한 여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표명하며, '여성단체를 조직하자'는 주장을 덧붙인다. 신설헌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여성 잡지와 교과서를 발간하여 일천만 여자 동포의 목소리를 높이자'는 결론을 지으며 첫 번째 의제를 마무리 짓는다. 이처럼 회의규칙과 절차가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합리적인 회의과정이 펼쳐진다. 따라서 회의과정을 지켜보는 독자들에게 여성교육이나 자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각성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회의규칙과 회의능력을 갖춰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학습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다른 한편, 회의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은 회의규칙이나 회의 절차에 영향을 받은 독특한 서사적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회의하는 신체성에서 유래되는 수사학적 특성을 지닌다. 회의 장면에 대한 묘사방식을 보면 마치 배우들의 대사를 순서대로 병기한 연극 대본과 같이 서술자의 개입은 완전히 차단되고 인물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전경화된다.

> "좌즁이 일시에 손벽을 짝짝짝짝 치더니 회장이 발길을 더듬더듬 승좌를 ᄒᆞ야 사션상 압에 가 웃쑥 셔니 엄연ᄒᆞᆫ 풍신이 졔법 병신 갓지 안이ᄒᆞᆫ대 눈으로 보지ᄂᆞᆫ 못해도 의뭉으로 일을 ᄒᆞ더라 - 중략 -
>
> (회원) 셔긔ᄂᆞᆫ 언론 가부에 참예ᄒᆞᆯ 겨를이 업스니 벙어리 아모씨로 쳔ᄒᆞ오.
>
> (회장) 가부 뭇소 림시셔긔를 벙어리 아모씨가 피쳔되얏스니 가타ᄒᆞ시거던 거슈하시오. … 쏘 부ᄐᆞᄒᆞ시거던 거슈ᄒᆞ시오. … 그러면 가결되얏나보오 림시셔긔 이리 출셕ᄒᆞ시오. -중략- 엇던 회원이 니러셔며 회장 우리가 회를 이러케 셜리 ᄒᆞ얏슨 즉 림시로 잠깐 ᄒᆞᄂᆞᆫ 일이 안이라 영구히 유지ᄒᆞ여야 ᄒᆞᆯ 터이니 부득불 규칙을 졔정ᄒᆞ여야 ᄒᆞ겟슨즉 규칙졔정위원 두분만 츄쳔ᄒᆞ기로 동의하얏소 쏘 ᄒᆞᆫ 회원이 니러서며 회장 그 동의 재청하얏소"[66]

66) 굉소생, 『병인간친회의록』, 『대한민보』, 1909.8.21.-24. 3쪽

www.kci.go.kr

"(금운) 여보, 설헌씨는 학문 설명을 자세히 하셨으나 그 성질과 형편이 그래도 미진한 곳이 있읍니다. -중략- 지식을 넓히려면 하필 어렵고 어려운 십년 이십년 배와도 천치를 면치 못할 학문 쓸데 있소? 불가불 자국 교과서를 힘써야 되겠다 합니다.

(국란) 아니오, 우리나라가 가뜩 무식한데 그나마 한문도 없어지면 수모 세계를 만들려오? 수모란 것은 눈이 없이 세우를 따라단기면서 새우 눈을 제 눈갈이 아나니 수모세계가 되면 새우는 어디있나? 아니될 말이요."[67]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병인간친회의록』에서 등장인물들은 "벙어리 아모씨로 천ᄒᆞ오", "동의하얏소", "회장 그 동의 재청하얏소"와 같이 동의나 재청 등의 회의 용어를 사용하여 회의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회의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독자들은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회의적 언설과 회의 용어를 익히며 회의규칙을 습득하고 회의하는 신체를 재규범화한다. 또한 "가타ᄒᆞ시거던 거슈하시오 또 부ᄐᆞᄒᆞ시거던 거슈ᄒᆞ시오", "림시셔긔 이리 출셕ᄒᆞ시오" 와 같이 회의 진행을 담당하는 회장의 권위 있는 목소리는 전면에 부각되고, 서술자의 목소리는 등장인물의 외양이나 인물들의 동작을 "~더라"체의 간접화법을 통해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실제로 회의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회의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현장감을 갖게 된다.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자유종』에서도 등장인물들 사이의 대화는 "아니요~ 만들려오", "아니될 말이요" 등과 같이 묻고 답하는 수사의문문을 활용한다거나 "여보~ 있읍니다"과 같이 직접화법으로 전달된다. 이처럼 등장인물들 간에 오가는 직접화법의 대화는 독자들을 회의 현장에 직접 참여한 청중의 위치로 소환함으로써 마치 회원들의 대화를 직접 듣고 있는 것 같은 정서적 몰입효과를 높여준다. 독자들의 정서적 몰입

67) 이해조, 『자유종』, 『한국신소설전집』 2권, 을유문화사, 1968, 148-149쪽.

www.kci.go.kr

효과가 높아질수록 회의 결성해야 할 당위성을 수용하게 되고 회의규칙에 따른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교육적 효과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처럼 연설과 연극, 소설적 특성을 모두 결합한 '연극적 소설'은 독자를 연설회와 회의 현장에 참여한 청중으로 소환하여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흥, 감발(感發), 감동, 고동(鼓動), 감화 등의 감정적 동일화를 갖게 만드는 신체적 감각과 계몽 기획과 관련한 사회변혁의 근원적인 원동력을 서사화한 액자구조와 계몽구조가 결합된 독특한 서사물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초기 '연극적 소설'은 연설과 회의, 소설, 연극적 특성이 결합된 독특한 서사물이다. '연극적 소설'은 다수의 청중을 향해 계몽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연설회나 회의를 소설 속에 그대로 재현하여,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를 펼치는 배우처럼 등장인물이 연설과 회의를 실행하는 모습을 실사로 중개하듯 전달한다. 이 독특한 서사물은 1907년의 '신문지법'과 '보안법'에 이어 1909년의 '출판법' 반포를 계기로 군중집회와 공중회동이 철저히 금지됐던 1900년대 후반에 등장했다.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계몽담론은 국민국가 신설과 국민 주권의식의 고양에서 풍속개량론으로 전환되었고, 소설 속에 연설과 회의의 현장을 끌어들여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계몽이념을 전파하는 새로운 양식의 서사물이 등장했다. 본고에서는 당대 신문에서 이 일군의 소설을 '연극적 소설'이라 명명했던 사실에 주목하여, '토론체소설'로 규정해왔던 기존 논의에서 소홀해왔던 '연극적 소설'의 독특한 특성을

www.kci.go.kr

고찰하였다. 근대 초기 '연극적 소설'은 연설회를 재현한 유형과 회의 현장을 재현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연설과 회의라는 두 축으로 전개됐던 근대 초기 공적 말하기의 형성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금수회의록』과 『경세종』, 1920년대에 신소설 다시 쓰기 붐을 타고 『금수회의록』의 모티프를 차용한 『만국대회록』 등 연설을 재현한 '연극적 소설'의 두드러진 특성은 '이중의 액자구조'와 연설하는 신체성의 부조에 있다. '이중의 액자구조'는 우화소설과 연설회의 특성이 결합된 것이다. 서술자가 동물들의 연설회에 참관하게 된 경위와 소감을 전달하는 외부서사 속에 연설회의 광경을 담은 내부서사가 들어 있고, 내부서사는 다시 개회사와 폐회사라는 또 다른 작은 액자 속에 동물들의 연설이 담긴 독특한 형태를 이룬다.

동물들은 연설을 통해 '인간의 자격 없음'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주장하고 이 주장을 회장과 인간 서술자가 다시 재확인하는 이중의 액자구조는, 인간사회의 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서사적 힘으로 작용한다. 또한 동물들이 연설하는 장면은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모습과 같이 연설하는 신체동작을 통해 독자들에게 연설회의 현장에 참여한 것과 같은 감동을 안겨준다. 즉, 청중을 향해 질문을 건네거나 화답하는 수사적 어법, 웃음소리와 박수소리 등의 청중의 신체적 반응을 곳곳에 삽입함으로써 연설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집단적 정동을 공감각적으로 느끼게 만든다.

회의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은 독자들에게 회의의 규칙과 진행방법을 교육하고, 회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하는 이중의 목적을 지향한다. 회의는 그 특성에 따라 회의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유형과 소규모의 토의로 구분된다. 『병인간친회의록』, 『천중가절』, 『금수재판』은 전자에, 『자유종』은 후자에 속한다.

www.kci.go.kr

두 가지 유형 모두 액자구조와 회의하는 신체를 부각하여 학습효과와 계몽효과를 극대화한다. 전자의 경우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는 전반부와 등장인물의 반복적 연설이 진행되는 후반부가 결합된 특이한 구조를 이룬다. 이는 당대 애국계몽 단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졌던 회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다. 『병인간친회의록』과 『천중가절』은 회의규칙에 따라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순차구조를 이룬다. 『금수재판』 역시 회의규칙과 재판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순차구조를 이룬다. 『자유종』은 소규모의 좌담회라는 특성상 '의제 제시 → 자유로운 의견 개진 → 마무리'의 패턴이 반복되는 순차구조와 병렬구조가 결합된 독특한 구조를 지닌다.

회의를 재현한 '연극적 소설'의 공통점은 마치 연극 대본과 같이 서술자의 개입이 차단되고 오직 직접화법의 대화를 통해 동의, 재청, 가결 등의 회의 용어를 활용하여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하는 신체적 규범이 전경화된다. 이러한 회의 장면은 독자들에게 회의규칙과 원리에 합의에 도달하는 회의 절차를 교육시키는 학습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근대 초기의 연설과 연극은 무대 위에서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신체를 활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근대적 퍼포먼스의 수용이라는 상동성을 지닌다. 따라서 연극과 연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체 감각과 이미지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고, 입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구어체라는 새로운 문체의 습득이 이뤄져야 한다. 이 연장선 상에서 볼 때 연설과 연극적 특성을 소설에 결합한 '연극적 소설'에 대한 연구에서 새로운 신체 감각과 구어체가 결합된 독특한 문체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면상의 이유로 다음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공립신보』, 『대동학회월보』, 『대한매일신보』, 『대한민보』, 『황성신문』,
김병제, 『사회승람』, 보문사, 1908.
『한국 신소설 전집』, 을유문화사, 1868.

2. 논문과 단행본

강명관, 「근대 계몽기 출판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문학사연구』 14호, 1999. 55-70쪽.
고모리 요이치, 허보윤 외 공역, 『감성의 근대』, 소명출판, 2011.
고영학, 『개화기소설의 구조연구』, 청운, 2001.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권정희, 「근대 연극장의 재편과 '흥행' 개념」, 『한국근대예술 연구』 42집, 2013. 13-52쪽.
권태억 외,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I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김교봉, 『근대전환기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5.
김대희, 『이십세기조선론』, 탑인사, 1907.
김동식, 「개화기 문학개념에 관하여-의사소통양식으로서의 문학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29집, 2003.12, 89-117쪽.
김만석 외, 『웅변학』, 화술, 1998.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1997.
김윤식, 『한국문학사논고』, 법문사, 1973.
김윤식, 『한국소설사』, 예하, 1993.
김재석, 『한국 현대극의 이론』, 연극과 인간, 2011.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마류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문명개략"을 읽는다』, 문학동네, 2007.
마리 매클린, 임병권 역, 『텍스트의 역학-연행으로서의 서사』, 한나래, 1997.
문성숙, 『개화기소설론연구』, 새문사, 1994.
문준영, 「한말과 식민지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법사학연구』 46집, 2012. 247-304쪽.
송현호, 한국근대소설론연구』, 국학자료원, 1990.
왕희자, 「안국선의 『금수회의록』과 田島象二의 『인류공격금수국회』의 비교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1.

www.kci.go.kr

우수진, 『한국 근대연극의 형성』, 푸른사상, 2011.
이정옥, 「연설의 서사화 전략과 계몽과 설득의 효과 - 안국선의 『연 설법방』과 『금수회의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3호, 2007.6, 151-184쪽.
이정옥, 「애국계몽기 연설과 토론의 수용과정」, 『현대문학이론연구』 43집, 2010.12, 175-197쪽.
이정옥, 「개화기 연설의 근대적 말하기 형성과정 연구」, 『시학과 언어학』 21호, 2011.8, 221-248쪽.
이정옥, 「근대 초기 회의규범의 수용양상(1)」, 『한국문학논총』 59집, 2011. 12, 379-409쪽.
이정옥, 「근대 초기 회의규범의 수용양상(2)」, 『인문학연구』 47집, 2014.2, 465-510쪽.
임영한 외, 『화법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전성기 외, 『텍스트 분석방법으로서의 수사학』, 유로서적, 2004.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전은경, 「근대계몽기 지식인 독자의 '읽기'와 '쓰기'-『대한민보』 〈풍림〉의 〈대화체 서사〉와 토론체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65집, 2013.12, 513-554쪽.
캐스린 흄,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홍순애, 『한국 근대문학과 알레고리』, 제이앤씨, 2009.
효도미 히로미, 문경연 외 공역, 『연기된 근대』, 연극과 인간, 2007.

www.kci.go.kr

Abstract

Early Modern 'Dramatic Novels' and Narration Strategies of Enlightenment Discourses

Lee, Jung-Ok (SookMyung University)

Early modern 'dramatic novels' are distinctive narratives combining the characteristics of speech, meeting, novel, and drama. A 'dramatic novel' represents in the novel a conference or meeting propagating the messages of enlightenment to an audience through broadcasting the characters' speeches and meetings realistically as if actors perform on the stage. This unique style of narratives emerged in the late 1900s when all public speeches and assemblies for common people were prohibited through political oppression including the promulg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Publishing Act. Early modern 'dramatic novels' are largely divided into those representing speech meetings and those representing the scenes of meetings.

Some remarkable characteristics of 'dramatic novels' such as *Geumsuhoieuirok*, *Gyeongsejong, and Mangukdaehoirok*, which borrowed its motif from *Geumsuhoieuirok* in another boom of new novel writing in the 1920s, are 'the plot of frame within a frame' and the relief of the physicality of speaking. 'The plot of frame within a frame' is a product from combining the characteristics of allegorical novels and speech meetings. The outer narrative, in which the narrator explains how he came to observe the speech meeting of animals and how he was impressed, contains the inner narrative describing the scenes of the speech meeting, and the inner narrative again contains the animals' speeches within another frame of the opening address and the closing address. In addition, through physical motions resembling actors' performance on the stage, the scenes of animals' speeches make the readers feel as if they themselves are in the scene of the speech meeting. That is, by inserting rhetoric expressions asking or answering to the audience and the audience's physical responses such as laughter and hand clap here and there, the story induces the readers to feel synaesthetically collective affects happening in the scene of the speech meeting.

www.kci.go.kr

'Dramatic novels' representing meetings pursue double purposes: one, educating the readers on the rules and proceedings of meeting, and the other, asserting the necessity and justness of meeting. Depending on its characteristic, meetings are divided into those emphasizing rules and procedures and small size talks. *Byeongingganchinhoieuirok*, *Cheonjunggajeol*, and *Geumsujaepan* belong to the former, and *Jayujong* to the latter. Both of the two types maximize the effect of learning and the effect of enlightenment through using the plot of frame and spotlighting the bodies of meeting. *Byeongingganchinhoieuirok and Cheonjunggajeol* form a sequential structure, which organizes and integrates opinions and reaches the final agreement through the meeting rules. *Geumsujaepan* also adopts a sequential structure, reaching a rational conclusion according to the meeting rules and judiciary proceedings. Due to its characteristic as a small talk, however, *Jayujong* has a distinctive structure combining sequential and parallel structures, in which the pattern of 'presentation of agenda → free expression of opinions → closing' is repeated. A commonality of 'dramatic novels' representing meetings is that they foreground the physical norm that the meeting proceeds according to the rules with blocking narrator's intervention as in a drama scenario and using meeting terms such as motion, second, and carry through direct speech. Such a meeting scene plays the role of a textbook for teaching the readers on the proceedings of meeting in which the participants reach an agreement through meeting rules and principles.

(Key Words: Dramatic novels, enlightenment discourse, customs and manners reform theory, performativity, speech meetings, meeting scene, meeting rules, collective affect, emotional response, formation of modernistic speech)

▌위 논문은 2014년 10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